

투데이 칼럼

북한의 언론인들

북한에선 태양절이 명절 중의 명절이다. 최대 명절로 중시하면서 이를 계기로 내부 결집을 꾀하고 있다. 이 때 선봉에 서서 총공세를 펼치려는 임무를 부여받은 집단이 있다. 기자와 방송원 등 언론인들이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기자동맹 대회까지 열어 주민들을 향한 언론의 강력한 사상전을 촉구했다. 북한의 '기자는 대체로 좀 딱딱한 이미지다.



정복규 논설위원

그런데 북한 기자들에게 이번 기자동맹 대회에선 '새롭고 참신한 기사를 쓰라'는 당의 주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엔 좁은 참신하고 효과적인 선전선동을 강조해왔다. 보도 방식도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태양절을 앞두고 김일성 사적지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수첩을 들고 기록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다. 기자, 방송원, 출판인 등으로 구성된 조선기자동맹원들이다.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으로 기자동맹 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조선중앙TV 방송원 리춘희, 노동신문 논설위원 동태관 등 언론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과거 대회와 마찬가지로 경제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사상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북한 당

국이 새롭게 제시한 언론의 역할이 흥미롭다. '인민을 고무하는 기사를 기동성 있게 내라'면서 '새롭고, 참신한 기사로 실효성과 침투력을 높이라'고 주문한 것이다. 북한 기사는 '시대의 선도자' '혁명의 나팔수'로 불린다. 내부 소식을 전하는 것은 물론 당국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출신 성분은 물론, 강도 높은 사상 검열을 거쳐 까다롭게 선 받는다. 양성 기관에서 혹독한 훈련을 통과한 기자들이 외부에도 잘 알려진 조선중앙TV, 노동신문 등에 배치된다. 가장 인정을 받는 기사는 중대 보도나 정치 행사 진행을 맡게 된다. 기자와 비슷한 방송원, 조선중앙TV의 입으로 불리는 리춘희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자의 역할과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그녀는 4차 핵실험 공식 보도를 맡으며 김정은 시대에

입지를 지킨 콩크 레이다. 정권 수립 73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김정은 위원장의 어깨에 손을 대고 콧수발을 하거나, 기념사진 촬영장에선 가장 먼저 김 위원장의 손을 잡았다. 지난해 4월, 태양절을 앞두고 평양 보통강을 조망점으로 둔 초호화 고급 빌라를 선물 받았다. 북한 언론인의 역할은 지도자에 대한 충성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 기자들은 당과 수평을 떠날려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인정받기 위한 기사를 쓰는 걸 속명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 당국이 내세우는 새롭고, 참신한 기사는 알려진 보도 형식에 있다. 이른바 '김일성 따라 배우기' 수업이라 불리는 배움의 전라길 행군은 현 약 보름가량 이어진다. 올해는 조선중앙TV 기자가 동행했다. 김일성 위상화라는 주제는 같지만, 일방적인

전달에서 벗어나 직접 현장을 취재하고 참여도 대폭 강화했다. 인터넷 대신 현장의 다양한 소리도 담아냈다. 김 위원장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관광지 소개 방송도 완전히 달라졌다. 기자를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주민들의 모습도 그대로 전파를 탔다. 기존의 무겁고 딱딱했던 이미지를 벗고 친근함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주로 기사로만 뉴스를 전달했던 기자들이 화면 곳곳에 등장하며 새로운 방식에 도전했다. 글보다 동영상에 익숙해진 주민들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조금씩 외부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에 따른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이다. 기성세대들에게도 외부 소식은 늘 인기 있는 뉴스다.

북한의 MZ 세대, 이른바 '잠자코' 세대들은 외부 문화 수용에 있어 훨씬 더 적극적이다.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당국이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통한 외부 문화 유포 차단에 나설 정도다. 그러나 법적 통제와 함께 선전 선동의 전면에 있는 기자를 활용해 나침의 혁신을 시도한다. 김정은식 계획 인 셈이다. 북한 기자들은 현장을 누비며 대중 친화적인 모습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북한 사회에 어떤 변화를 미칠지 주목된다.

사건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부처님 오신 날, 펼쳐지는 초대형 부처 그림



지난 4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이포의 티베트 사원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가 열려 신도들이 60x12m 규모의 대형 석가모니 그림을 펼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5월의 보름달이 뜨는 날을 부처님 오신 날로 봉축한다.

독자제언

불법촬영은 중범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증하고, 위장형 카메라를 쉽게 구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 촬영과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불법촬영은 숙박업소, 공중화장실, 수영장, 목욕탕 등 일상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이버 매체를 수단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저장, 유포, 유포 협박, 전시·판매하는 등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일컫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20년 5,032건 △21년 6,212건으로 23.4% 증가하였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사이버

공간 등을 이용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는 △20년 2,047건 △21년 5,067건 14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서는 점검단을 구성하여 전파·랜즈 탐지기를 활용 불법 카메라를 점검하는 한편 사이버 공간상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에서 개발한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관계기관(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과 함께 활용하여 피해영상물 삭제·차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법 촬영이 의심되거나 발생할 경우 즉시 112신고를 통하여 빠른 조치와 보호를 받아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더 이상 불법 촬영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범죄임을 인식하고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을 통해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김대근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사설

전북대병원 중증근무력증 진단법 개발

전북대학교병원이 최근 '중증근무력증 진단 기술'을 개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대학교병원 신경과 오선영 교수는 비디오안구운동검사(video-oculography, VOG)를 이용해 근육 피로도를 직접 측정함으로써 안전하게 중증근무력증을 진단하는 기술을 국내 특허 출원했다. 오 교수는 영상안구운동검사(VOG)를 이용하여 분석이 쉽고 정확하게 중증근무력증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단 방법으로 중증근무력증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중증근무력증(Myasthenia Gravis, MG)'은 복시와 안검하수를 주 증상으로 근력 약화와 피로를 특징으로 한다. 가장 대표적인 신경근육접합부 질환으로 자가 항체에 의한 자가면역 질환이다. 처음에는 복시와 안검하수를 증상으로 하는 안구형 중증근

무력증으로 시작한다. 점차 얼굴과 목, 팔, 다리, 심하면 호흡근까지 침범하는 전신형 중증근무력증으로 진행된다. 초기에는 눈꺼풀 등 눈 근육에만 약 15% 국한된다. 그러나 전신으로 진행하며 다른 부위의 근육까지 침범한다. 때문에 안구형 중증근무력증 조기 진단은 매우 중요하다. 전신형 중증근무력증으로의 전환을 줄이고 질병의 악화, 입원 및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까지 중증근무력증의 진단에 사용되는 검사들은 민감도 및 특이도가 낮았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중견 후속 연구 사업으로 수행되었다. 진단법 연구 논문은 국제 학술지 최신호에 게재됐다. 중증근무력증 환자의 질병 악화와 입원 및 장애를 방지하여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전북투어패스 총체적 부실

전북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며 투어패스를 도입한 지 7년째 접어들었다. 그러나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 실적이 부풀려지고, 수익금이 무단으로 사용돼 수십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직접 개발했다는 시스템은 버려두고, 다른 시스템을 빌려 쓰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었다. 전라북도가 지난 2017년 출시한 '투어패스'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유명 관광지과 주차장, 음식점 등과 제휴해 할인율을 제공하는 카드다. 판매 개시 2년 만에 정음에서 20만여 장을 판매했다고 전라북도는 밝혔다. 그러나 감사결과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 건수를 두 배 이상 부풀린 것이다. 투어패스 판매 수익금 관리도 엉망이었다. 패스 판매를 위탁한 업체로부터 전라북도가 수익금 43억여 원을 받은 뒤 분배해야 했다. 그러나 20%도 되지 않는 8억 원만 받고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보였다는. 심지어 '투어패스'의 판매 실적과 가맹점 현황, 제휴업체 이용 실적 등이 기록되어야 할 통합관리 시스템도 문제였다. 9억 원 넘게 들여 자체 개발했다는 프로그램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다시 4억 5천만 원을 들여 재개발 했는데 결국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2월부터 타사 프로그램을 임대해 다달이 1천4백만 원씩을 이용료로 납부하는 실정이다. 통합시스템은 설치 후 1년 간 유지 보수가 무상으로 제공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업체에 유지 보수비와 인건비로 5천9백만 원을 주기도 했다. 특정 감사로 파악된 손실은 약 40억 원이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5천9백여 만 원을 환수 처분하고, 관련 공무원 3명에게는 감봉 등 징계를, 5명은 훈계를 요구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